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9. 6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배터리 셀의 CNT 포함 여부는 조사위 초기단계부터 인지해
조사 검증을 거친 사항으로 동 기사의 '배터리 원인 가능성
무시'는 사실이 아님 (국민일보 6.1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배터리 셀의 CNT 포함 여부는 조사위 초기단계부터 인지해 조사
검증을 거친 사항으로 동 기사의 '배터리 원인 가능성 무시는 사실이 아님
- 배터리 셀 CNT 함유 여부는 국책연구원 이모 박사의 제보를
받고 조사위 활동 초기부터 검증항목에 포함된 사항임
- 배터리 셀에 CNT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증결과는 조사위가
해당업체 사실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조사위 차원의 정밀 검증을
통해 확인된 사항임
- ◇ 6월 14일 국민일보 < 운영미숙 때문이라는 잇단 ESS 화재...정부
'부실조사' 가능성 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“민관합동 조사위원회와 수차례 조사 진행 상황을 소통했는데, 조
사위원회는 화재 발생 ESS 사업장의 배터리가 전소돼 시료채취가
불가능하다고 했었다”고 전했다. 반면 산업부는 “화재가 난 곳에서
여러 개의 배터리를 샘플로 수거해 조사를 진행했다”고 말했다. 조사위
한 위원은 “화재 사고가 난 환경과 유사한 사업장 4곳의 배터리와 2
개의 신품 배터리를 조사했다”고 했다.
- 또한, 정부는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어떤 물질로 구성돼 있는지
구체적인 기술자료를 받지 못했다. 배터리에 대한 핵심정보도 없이
시험했다면 조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.

2. 동 보도에 대한 사고원인조사위원회와 산업부의 입장

- 배터리 셀의 CNT 포함 여부는 조사위 초기단계부터 인지해 조사
검증을 거친 사항으로 동 기사의 '배터리 원인 가능성 무시'는
사실이 아님
- 산업부는 이 모 박사의 제보에 따라, 조사위를 통해 LG화학측에
배터리 셀에 CNT 함유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, **LG화학은 CNT가
불포함 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부에 제출하였음**
- 또한, 산업부는 조사위에 동 사안을 포함시켜 정밀조사할 것을 의뢰
하였고, 조사위는 CNT 함유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
다수의 시료를 사용하여 검증을 하였음
 - 화재발생 ESS 사업장의 배터리 셀은 전소되어 활용이 불가능
했기에, 화재 사고가 난 환경과 유사한 사업장 등 4곳에서 사용
중인 배터리 셀과 2개의 신품 배터리 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
하였고 배터리 셀에 CNT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함
- 한편, 조사위원회는 배터리 셀에 CNT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기
전에 LG화학으로 부터 음극, 양극, 전해액, 분리막 등 배터리의 주요
구성 물질에 관한 정보를 받았음

※ 문의 :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회 간사 장태현(031-500-0100)
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이귀현 과장 / 김준호 연구관(043-870-5415)